

❖ 『보리스 고두노프』 - 과거(역사)와 미래(시학) 지향의 변증법적 진테제

I. 왜 『보리스 고두노프』인가?

1. 역사물에 대한 관심
2. 낭만주의의 시대적, 역사적 관심
3. 주인공, 제목으로서의 “보리스 고두노프”(Борис Годунов)

II. 문학작품으로서의 『보리스 고두노프』

1. 작품

-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쉬킨(А. С. Пушкин; 1799~1837)이 1825년 11월 완성. 작품 완성 직후 알렉산드르 I세가 사망하고, 이어 즉위한 니콜라이 I세의 대관식 날, 이른바 <데카브리스트의 난(Восстание Декабристов)>이 일어남. 푸쉬킨을 비롯한 봉기 참가 귀족들을 무자비하게 다스린 니콜라이 I세의 정책 등으로 『보리스 고두노프』는 검열에서 애를 먹은 뒤 이후 1831년 초판본이 겨우 발행되었다. 이 초판본은 1825년 완성된 초고와 군데군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작품은 18세기 말~19세기 초 러시아 감상주의의 대표적 작가이자 역사가, 문필가였던 니콜라이 미하일로비치 카람진(Н. М. Карамзин; 1766~1826)의 『러시아 국가사(История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라는 역사 저술에서 모티프를 얻고 또한 많은 부분을 제재로 삼아 완성되었음.

2. 구조

= 전통적인 막과 장의 구분이 없으며, 전후 좌우의 엄격한 대칭 구조를 보여줌. 고전주의적 연극의 이른바 3일치의 법칙이 준수되지 않음.

- 작품이 23(25)개의 “장면(сцена)”이라는 단위로 나뉘어져 있음. 또한 이 ‘장면’은 <시간>과 <장소>의 일치라는 고전주의/신고전주의 희곡 작법 원칙을 비웃듯 현격한 시간적, 공간적 거리로 분리되어 있음. 1598년 2월, 크레믈린 궁전에서부터 1604년 12월, 노브고로드-세베르스크 근처의 평원까지, 그리고 리투아니아 국경과 셉스크 별판까지.

- 그럼에도 전체 작품은 대략 아래의 5부분으로 나뉠 수 있음

1) 장면 1, 2, 3, 4 - 슈이스키 등 귀족의 보리스 고두노프에 대한 반감, 보리스의 짐짓 제위 등극 보류, 그러나 민중의 (어수선한) 지지에 의한 보리스 고두노프의 황제 등극<발단>.

2) 장면 5, 6, 7, 8, (9) - 수도원 생활에 불만족과 세속과 권력을 동경하던 그리고리는 노수도사 삐멘(Пимен)의 은근한 만류를 뒤로하고, 자신이 죽었다는 동갑내기 디미트리 황태자(царевич Димитрий)로 부활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전개>.

3) 장면 9(10)~13(15) - 참칭자가 폴란드 땅에서 세력을 규합하고, 마리나 공주와의 밀담 대면을 통해 모스크바로 진격키고 결심<위기>.

4) 장면 14(16)~18(20) - 민중의 보리스 고두노프에 대한 증오, 참칭자 지지<절정>.

5) 장면 19(21)~23(25) - 보리스 고두노프의 죽음과 일족의 파멸, 참칭자의 승리, 그 역시 파멸에 대한 예고<파국>.

- 이러한 전체 5단계 구성과 등장인물 행위의 인과성이 보여주는 행위의 일치에 의한 희곡의 중심 구조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동시에, 13장(25장), 마리아의 의상실 또는 11~13장(23장) 폴란드의 크라코프 비시네베츠키 공후의 저택에서의 장면을 중심으로 앞뒤가 맞보기로 대비가 되는 구조를 보인다.

- 이때 그 구조는 크게 세 개의 틀을 가진다.

1) 1,2,3장면이 마지막의 21,22,23(23,24,25)장면과 제일 바깥에서 '민중'이란 주체로 묶이고,

2) 4번째 보리스 고두노프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20(22)번째 장면과 수미상응하며 보리스 고두노프의 즉위와 죽음을 알려준다.

3) 그리고 그 속에 5번째 장면이 역시 19(21)번째 장면과 조용해 참칭자 드미트리의 첫 등장과 마지막 퇴장을 보여준다.

4) 내부의 6~10(8~12)번째 장면은 앞서 말한 11,12,13번째 폴란드 장면을 중심으로 우측에 위치한 14~18(16~20)번째 장면에 조용한다.

5) 이런 균형잡힌 좌우대칭 구조와 그 중심에 서는 폴란드 크라코프 성에서의 장면, 또는 마리아의 의상실 장면은 작품 전체를 좌우(앞뒤)로 정대칭되는 구조와 틀로 구성해준다.

* 구조의 의미론

a) 권력(보리스, 드미트리, 공후들)을 바깥에서 껴안고 있는 민중의 모습을 형상화

b) 권력과 민중의 속성을 서로 반사, 대비

3. 주제론

- 황제의 정통성에 대한 중세적 믿음을 수용

- 보리스 고두노프의 교사설 수용, 동시에 그를 옹호(자비롭고, 현명하며 냉철한 군주의 자질을 갖춘 인물로는 묘사)

- 참칭자 디미트리에 대해선 매우 우호적으로 묘사(입체적이며, 낭만적 비극의 주인공으로까지 격상)

- 모스크바의 귀족들에 대해선 1) 황제의 은총을 잃는 것<실종>, 2) 백성/외세를 이용하는 능력과 자질을 부정적으로 부각, 3) 세습신분과 능력, 혈통의 문제 대두

- 민중, 백성들에 대해선, * 단일한 시각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수족재주, 수족복주(水則載舟, 水則覆舟)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어 보이는 하다.

- 그러나 민중, 백성이 아직 역사 추동력의 한 동인으로 분명히 나서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전히 그들은 무지몽매하며, 측량이 좀처럼 어려운 통제가 쉽지않은 잠재적 폭발력을 가진 '위협'세력(!)으로 짜르 보리스 고두노프에게도, 참칭자 디미트리에게도, 대귀족 슈이스키에게도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 마지막의 '침묵하는 백성'의 해석은 경계의 여지가 있다.

- 작품에서의 <민중(народ)>은 19세기 초반, 낭만주의적 역사관에서 비롯한 것은 분명하나, 민중을 이해하는 인물들의 시선과 인식은 여전히 '지렛대'로서의 도구적 수준임을 노출.

- 심판관이자 기록자로서 시인과 역사가의 일견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위치와 역할에 대해선 뿌쉬킨이 자신을 투영한 노수도사 삐텐의 말과 역할에서 읽어 낼 수 있다. 또한 신의 은총과 자비로 내려진 쓰고 읽을 줄 아는 능력(грамота)가 아닌 악마의 수주로 얻어진 이러한 능력은 인간을 파멸케하는 지름길이라는 중세적 사고 역시 참칭자의 경우를 통해 제시된다.

4. 장르

- = 18세기 서구로부터 유입된 신고전주의 희곡창작원칙에 대한 뿌쉬킨의 저항과 그 표식
- 소위 시간, 장소, 행위의 일치라는 3일치 중 관례성의 정도가 심한 시간과 장소의 일치는 여지없이 붕괴되거나 극을 이끌어가는 '서사'로서의 행위의 일치는 준수된다.
 - 또한 역사와 허구를 결합시키는 이른바 오늘날의 팩션(faction) 기법은 역사소설, 역사드라마의 실험정신이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언급할 수도 있는 만큼, 역사와 허구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양자 모두를 해칠 수 있다는 보수적 반론도 충분히 허용하는 태생적 구도를 내재하고 있다.
 - 소위 <동란의 시대>를 자신의 역사드라마의 배경으로 선택한 것은 여러 시선이 '교차'하는 드라마라는 장르적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시대 배경의 선정일 수 있으며, 이는 드라마라는 장르에 대한 뿌쉬킨의 탁월한 감각적 통찰일 수도 있을 것이다.

5. 시학

- = 서정(抒情)과 서사(敍事)의 이해
- 드라마는, 1840년 이후 이른바 자연파와 리얼리즘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될 소설과 함께, 크게 보아 서사의 영역에 속하며, 이는 드라마와 소설은 시와는 다르다는 뜻이다.
 - 18세기 서구화라는 '학습'의 시기를 거치며 서구적 글쓰기를 연마하기 시작한 러시아 문학은 뿌쉬킨이라는 당대의 '방향지시자', '전례(典例)제조자'의 노력 하에 개발도상국의 지위에서 단숨에 문학선도국의 위치로 뛰어오르게 된다.

; 러시아 민족의 과거인 역사를 복원(!)하며, 이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학, 예술 형식으로 담아내려 한 뿌쉬킨의 '노력'(『보리스 고두노프』)은 과거와 미래의 분기점인 오늘이라는 좌표에서 제시된 변증법적 진테제였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보리스 고두노프』와 17세기

1. 민중, 민족의식 각성의 계기
2. 이어지는 사회 혼란의 시발점 - 종교개혁과 구교도 문제
3. 17세기 중후반 폴란드를 비롯한 서슬라브의 영향
4. 18세기 초,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 정책을 배면에서 지원한 결과

IV. 『보리스 고두노프』와 19세기 또는 그 이후

1. 검열과의 관계
2. 낭만주의 사관의 한계 - 푸쉬킨의 당대적 한계, 왕당파 역사가인 카람진을 수용.
3. 문학 '바깥'에서의 『보리스 고두노프』 - 연극, 오페라, 영화.
4. '참칭'(僭稱; самозванство)의 문제 - 범위, 지속성, 구조

참고문헌

- 알렉산드르 푸시킨/석영중. 『보리스 고두노프』. 열린책들: 1999, 2005.
- 알렉산드르 푸시킨/조주관. 『보리스 고두노프/모차르트와 살리에리』. 지만지: 2009.
- 알렉산드르 뿌슈킨/최선. 『뿌슈킨의 정치희곡 보리스 고두노프, 황제 보리스와 그리슈까 오뜨레페예프에 대한 희극』.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 정지윤. “『보리스 고두노프』에 나타나는 기적에 대한 민중의 믿음”. 『노어노문학』. 제19권 (2007) 1호. 295~311쪽.
- Карпов А. А.* "Борис Годунов" А. С. Пушкина // Анализ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Л., Изд. ЛГУ. 1988. сс. 91-108.